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 살아지다2 ‘승기천을 기억하다’				
구술자명	이기영	면담자	남희현		
면담장소	주안8동 천주교회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19년 12월 1일(일) 오전10시, 12월 15일(일) 오전8시30분	회차	2	시간	4분 33초 30분 32초
자료번호	MichuholCA-07-00001157				
구술 개요	순복음교회 뒤편 신비마을에 살았음. 신비마을에서 석바위로 가려면 장다리를 건너야 함. 승기천은 장마 때마다 흘러넘쳐 농사를 망침. 논농사를 위한 신비저수지가 순복음교회 옆에 있었음. 장다리가 없어지면서 인주대로가 생김. 22살에 월남전에 참전함. 아버지와 눈에 가서 계를 잡았던 기억. 60년대 중반 장다리 일대는 장화 없이 다니기 힘들었음.				
주요 색인어	주안8동, 성당, 순복음교회, 신비마을, 동그란산, 석말, 장다리, 승기천, 장마, 신비저수지, 수영, 민물장어, 참게, 복개, 범람, 인주대로, 문학초, 승학산, 월남전, 장화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소개			음성 1 00:00:44~ 00:02:29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48년생으로 문학초, 동인천중, 동인천고를 졸업함. - 주안8동 성당 자리는 논이었고, 위쪽으로는 밭과 목장이 있었음.					
2. 신비마을			음성 1 00:02:30~ 00:04:33,		
- 순복음교회 뒤편 신비마을에 살았음. 순복음교회는 동그란산을 허물고 지은 것. - 신비마을과 석말이 논을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 있었음. - 작은신비마을은 관교중 위치에, 큰신비마을은 한국아파트 밑쪽에 있었음. - 신비마을 사람들은 석바위에 가려면 시멘트로 된 장다리를 거쳐야 했음.			음성 2 00:00:00~ 00:00:43		
3. 승기천에 대한 기억			음성 2 00:00:44~ 00:03:10		
- 승기천은 여름 장마 때마다 흘러넘쳐 논농사를 망치곤 했음. - 승기천은 기계공고에서 모여 남동구로 흘러 바다로 빠짐. - 폭이 넓었고 개울 양옆으로 독과 논이 있었음. 다리는 자동차, 우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넓이.					
4. 농사와 저수지			음성 2 00:03:11~ 00:05:05		
- 석말은 밭농사, 신비마을은 논농사를 많이 지음. - 논농사를 위한 신비저수지가 순복음교회 옆에 있었음.					

- 신비저수지에서 수영을 하거나 민물장어, 참게를 잡기도 했음. - 저수지와 승기천은 상관이 없었음.		
5. 승기천의 복개		
- 수로(승기천)은 평상시에는 물이 많지 않았지만 비만 오면 범람하여 피해가 컸음. - 장다리가 없어지면서 도로(인주대로)가 생김. - 어렸을 때 승기천에서 수영하고 고기를 잡던 기억이 있음.	음성 2 00:05:06~ 00:13:18	
6. 젊은 시절에 대한 기억		
- 문학초를 다닐 때 승학산을 넘어 다님. 당시 향교는 지금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였음. - 22살에 20개월 동안 월남전에 참전함. - 태어났을 때 너무 작아 1년 늦게 출생신고를 함.	음성 2 00:13:19~ 00:17:47	
7. 물길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기억		
- 동네에 개울들이 있었고 이것이 모여 남동구 쪽으로 흘러감. - 승기천은 바다로 이어져 망둥어를 잡을 수도 있었음. - 잡은 물고기는 집에 가져가서 먹곤 했음. - 아버지와 함께 논에 가서 게를 잡았던 기억.	음성 2 00:17:48~ 00:23:42	
8. 연결되는 과거, 현재, 미래		
- 장다리가 있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음. - 개인주의 시대인 지금이 각박하게 느껴짐. - 손주와 과거의 기억(월남전 참전)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음.	음성 2 00:23:43~ 00:28:19	
9. 장다리		
- 장다리 양쪽으로 논이 있고 그 밑으로는 승기천이 흘렀음. - 장다리를 넘어가면 석바위 혹은 신비로 갈 수 있었음. - 당시(60년대 중반)에는 장화 없이 다니기 힘든 곳이었음.	음성 2 00:28:20~ 00:30:32	